

# 김석문의 『易學二十四圖解』에 나타난 새로운 占筮法 연구\*

조희영\*\*

1. 시작하는 글
2. 김석문의 새로운 占筮法
  - 1) 점서법 개관
  - 2) 大衍圖法
  - 3) 先天蓍草法과 後天蓍草法
  - 4) 四象 발생 확률 등
3. 마치는 글

## 1. 시작하는 글

大谷 金錫文(1658-1735)은 경기도 포천 사람으로 淸風 金門이다. 그가 조선조에서 전례가 없는 새로운 天文宇宙論을 주장하였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대표적인 것이 地轉說[地球의 自轉과 公轉]과 右旋說 및 9重天說 등이다. 그 내용을 수록한 책이 『易學二十四圖解』(이하 '이 책'이라 함)로 40세인 1697년에 지었고, 69세에 판각되었다. 고향의 향토지인 『포천읍지』에 다음과 같은 글이 나온다.

\* 이 논문은 2019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9S1A5A8033775).

\*\* 조선대학교 인문학연구원 전임연구원.

어릴 때부터 사물을 보면 그 이치를 끝까지 사색하였고 커서는 역학을 깊이 탐구하였다. 족형인 김석주가 그를 보고 감탄하여 대성공의 성리학이 전해진 바가 있다고 했다. 40세에 책을 저술하여 태극으로부터 천하 만물에 이르기까지 그 채용의 묘를 다하였다. 책 이름은 『역학도해』이고 그림은 전부 44개에 글자는 127,200여 자이다. … 78세에 죽었다.<sup>1)</sup>

김석문은 어릴 때부터 格物致知의 자세를 가졌으며 커서 易學에 조예가 깊어, 이를 본 그의 12촌 族兄인 金錫靑(1634-1684)도 그의 학문에 탄복했다는 것이다. 金昌翁(1653-1722), 李喜朝(1655-1724)를 비롯하여 金元行(1702-1772), 黃胤錫(1729-1791), 朴趾源(1737-1805), 李德懋(1741-1793), 徐有渠(1764-1845) 등도 그의 학문을 인정했다고 한다. 이 책은 원래 그림이 44개에 글자는 모두 127,200자 정도이고, 그 내용은 太極에서 천하 만물까지 모든 것을 포괄했다고 한다. 그러나 판각된 26개 그림에 14,500자 정도만 전해지고 있을 뿐이다.

김석주는 金堉(1580-1658)의 손자이고, 그 윗대는 기묘명현의 한 명인 金湜(1482-1520)으로 김석문도 같은 후손이다. 김육은 시헌력을 도입하고 서양 천문학에 관심이 많았으며, 청나라에서 관련 서적을 들여왔다. 김석문은 ‘김육-김좌명(1634-1684)-김석주’ 3대로 이어지는 가까운 집안 친척들의 도움으로 西洋天文學을 익힌 것으로 보인다. 그의 학파는 老論界로 李安訥(1571-1637)-許格(1607-1691)의 문하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천문학과 역학 등 이 책의 주요 이론은 스스로 터득한 것으로 보인다. 허격은 강성 노론으로 중화주의를 신봉, 청에 굴복한 것을 애통해 하며 입산하여 생을 마감한 걸로 봐서 김석문에게 이런 최신 학문을 전수하지는 못했을 것이다.

김석문의 책은 1975년 閔泳珪(1915-2005)에 의해 처음으로 학계에 원문<sup>2)</sup>과 연구논문이 제시되었고, 이후 10편 이상의 논문이 발표되어<sup>3)</sup> 그의 학문과 책의

1) 『抱川邑誌』(光武 3年, 1899年 刊) “自小遇物輒思其理, 不得不止, 及長, 深於易學. 族兄金清城錫靑見而歎曰, 大成公性理之學有所傳矣. 年四十始有著書, 上自太極下至萬物, 盡其體用之妙, 名之曰易學圖解. 凡爲圖四十有四, 解十二萬七千二百餘言. … 卒年七十八.”

2) 원문은 ①민영규, 1975 『동방학지』 16, 1-64면, ②서울대 규장각, ③성균관대 대동문화연구원 經學資料集成 96·易經十』에서 확인 할 수 있다. 본 글에서 인용하는 글과 그림도 모두 여기서 나온 것이다.

3) 지금까지 나온 주요 논문은 다음과 같다. 민영규, 1975 『17세기 李朝學人의 地動說 - 김석

서지사항, 내력과 전승, 주변인들에 대한 많은 부분이 밝혀졌다. 기존 연구에서 관찰한 이 책의 특색은 전통학문과 최신학문의 '선택적 수용과 창조적 응용'<sup>4)</sup>이라 했다. 김석문이 학문에 대해서는 동서고금을 불문하고 균형감과 창의력을 가졌다는 것이다. 천문학 분야는 당시 주자학적 우주론을 무색케 하는 것이었다. 부동의 태극천[9층]에서 가장 회전이 빠른 지구[1층]까지 9층의 氣로 이루어진 새로운 천문이론을 제시하는 동시에 지구 중심 天動說에서 황심 중심 地動說로, 천체의 左旋說에서 右旋說로 변경 주장했다. 9중천의 크기를 거대한 天文常數로 계산해 냈으며, '天行健'의 새로운 해석 등은 시대사상을 흔드는 '코페르니쿠스적 전환(반전)'<sup>5)</sup>이었다. 역학 또한 송대 周濂溪(1017-1073)의 『태극도설』과 張載(1020-1077)의 『정몽』을 자신의 논리에 맞게 재조명하여 지전설의 근거로 삼고, 태극[理]과 태허[氣]를 9중천 내에 공존토록 하는 한편 장재에게서 우선설의 단초를 얻기도 했다. 또한 그는 우주론 전반에 邵康節(1011-1077, 이하 '강절', '강절역'이라 함)역학을 적극적으로 활용했다. 말하자면 역학도 천문학과 관련된 부분은 창조적으로 응용하였다는 것이다. 천문학과 역학에 대한 새로움은 그의 '학

문의 역학24도해 -』 『동방학지』16, 1-64면: 小川晴久(오가와 하루히사), 1979 『지전(동)설에서 우주무한론으로-김석문과 홍대용의 세계』 『동방학지』 21, 55-90면: 이용범, 1988 『李朝實學派의 西洋科學受容과 그 限界-金錫文과 이익의 경우』 『동방학지』 58, 39-73면: 허중은, 1994 『金錫文의 우주론과 그 사상사적 위치』 『동서철학연구』 11, 173-183면: 김용현, 1996 『金錫文의 宇宙說과 그 哲學的 性格』 『東洋哲學研究』 15, 363-401면: 문중양, 1999 『18세기 조선 실학자의 자연지식의 성격-象數學의 우주론을 중심으로』 『한국과학사학회』 21, 27-57면: 장숙필, 2000 『김석문의 『역학이십사도해』』 『도설로 보는 한국유학』, 예문서원, 289-318면: 구만옥, 2017 『18세기 후반 김석문(金錫文)과 『역학도해(易學圖解)』의 발굴-황윤석(黃胤錫)의 『이재난고(頤齋亂藁)』를 중심으로』 『韓國思想史學』 57, 1-59면: 황병기, 2004 『역학과 서구과학의 만남, 조선후기 사상의 내적 발전사 탐구』 『道敎文化研究』 21, 137-165면: 김영식, 2006 『조선 후기의 지전설 재검토』 『동방학지』 133, 79-114면: 김성환, 2013 『김석문의 학문 배경과 『역학도해』의 전승 과정』 『국학연구』 22, 407-437면: 양순자, 2015 『太極의 미완성된 자연화-金錫文의 『易學二十四圖解』를 중심으로』 『東洋哲學』 43, 171-200면: 전용훈, 2018 『『역학이십사도해(易學二十四圖解)』에 나타난 김석문(金錫文)의 우주론』 『정신문화연구』 152, 113-161면.

4) 김용현, 위의 논문, 400-401면.

5) 민영규, 앞의 논문, 1면: 小川晴久(오가와 하루히사), 앞의 논문, 58면: 문중양, 앞의 논문, 28면.

문적 균형감'과 '창의적인 과감성'에서 출발하였다. 그러나 많은 기존 연구에도 불구하고 아직 밝혀지지 않은 것이 있다. 대표적으로 26개 그림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다. 그림 분석에는 圖書象數學的 논리가 뒷받침 되어야 한다. 그가 직접 기술한 그림 해설을 오늘날 볼 수 없어서 근본적인 한계가 있으나 향후 연구 과제임은 분명하다. 또 하나는 그가 발명한 새로운 占筮法(이하 '점법' 혹은 '점서법'이라 함)에 대한 것이다. 占法에 대한 것은 그의 그림 8도-12도 사이에 들어 있다. 본 글은 이 그림들을 중심으로 김석문의 새로운 점법을 논하려 한다. 순서는 2장에서 새로운 점법을 분석한다. 그 내용은 1) 점서법 개관, 2) 대연도법으로 10개씩 제하는 것과 8개씩 제하는 두 가지 방법, 3) 선천시초법과 후천시초법, 4) 四象 발생 확률과 낙서와 납갑법 순으로 살펴본다. 마지막 3장에 그의 점법을 정리하면서 글을 마무리 짓는다.

## 2. 김석문의 새로운 占筮法

### 1) 점서법 개관

김석문은 西學[서양천문학]을 수용한 天文易學者이지만, 점서법은 서학과 무관한 독자적인 易學 작품이다. 그는 先學 특히 圖書象數易을 주로 참고하고 거기다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더해서 조선시대 전례를 찾기 어려운 새로운 점서법을 개발했다. 그 속에는 경전의 근거가 부족한 파격적인 내용이 있는가 하면 기존 점법의 문제점을 해소하는 시원한 내용도 담고 있어서 아마 당시 학자나 후학들에게 하나의 매력적인 숙제거리로 등장했을 것이다.

김석문의 점법을 파악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그가 그린 그림을 통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의 점법에 대한 제3자의 설명을 통하는 방법이다. 그러나 그림에 대한 그의 직접 설명을 접할 수 없어서 이해하기 쉽지 않다. 또한 그림에 대한 선행연구도 부족한 실정이다. 다행히 김석문 학문에 매료된 황윤석의 『頤齋亂藁』에 김석문 점법에 관한 일부 내용이 언급되었으며, 이에 대해 이미 한 차례 선행연구가 있었다. 이 연구는 김석문 점법 논의에 있어서 단

초를 연 유의미한 논문이다.<sup>6)</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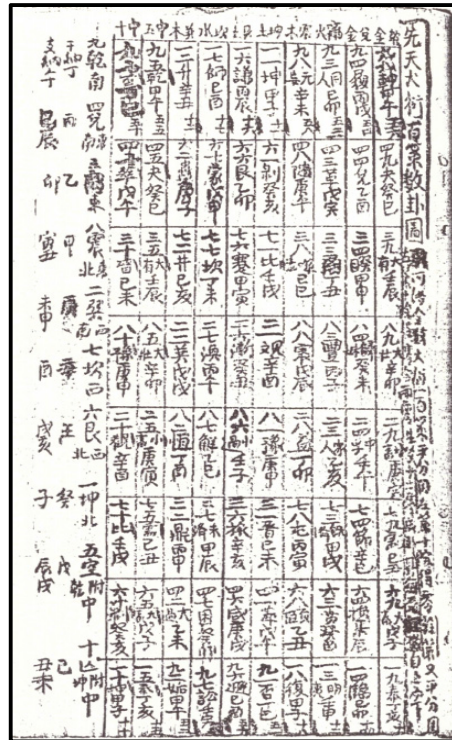
김석문의 점법은 크게 보면 3가지-大衍圖法, 先天蓍草法, 後天蓍草法-이나, 대연도법에서 除하는 방법-시초 10개를 제하는 법과 8개씩 제하는 법-에 따라 총 4가지로 나눌 수 있다. 현행 점법과 다른 점이 많아 한편으로 쉽지 않지만 다른 한편으로 흥미를 끈다. 아래에서 하나씩 본다.

## 2) 大衍圖法

### (1) 시초 10개씩 제하는 방법[第八數卦大衍圖: 先天大衍百策數卦圖]



〈그림 1〉 第八數卦大衍圖



〈그림 2〉 先天大衍百策數卦圖

6) 구만옥, 앞의 논문, 30-48면. 구만옥의 논문은 필자와 견해차가 적지 않다. 해당되는 부분에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하겠다.

대연도법에 대한 위 좌측 그림 『제팔수괘대연도』(이하 ‘『수괘대연도』라 함)는 이 책에 나오는 것이고, 우측의 『선천대연백책수괘도』<sup>7)</sup>는 『이재난고』 부록에 나오는 것이다. 전자를 기준으로 논의하고 후자는 보조 수준에서 언급할 것이다. 여기서 ‘대연’이란 시책을 현행 50개 보다 더 크게 100으로 불린다는 뜻이다. 『수괘대연도』는 강절의 『선천64괘방원도』를 근본으로 하고 있다. 즉 괘의 배열순서가 선천64괘의 순서가 동일하다는 것과 원도의 구성이 강절역을 근간으로 한다는 점이다. 그러나 강절 先天圖에서 말하는 左右旋과 김석문 그림의 상단 좌우측에 기재된 “괘수는 왼쪽으로 일정하게 회전한다[卦數從左平旋]”라는 문구는 그 의미가 다르다.<sup>8)</sup> 또 유의할 것은 洛書의 원리가 이 그림에 나타났다는 것과 64괘에 干支가 배분된 점도 강절 선천도와 다른 점이다. 내용이 복잡하여 번호를 매겨 순서대로 살핀다.

① 그림 상단 좌우측에 김석문의 새로운 점법 중의 하나인 ‘대연도법’과 관련하여 다음의 글과 표시가 있다.

(우측 상단) 十除兩零生爻. 空5戊一, 乾9丁□, 兌4丙--, 離3乙--, 震8甲一. 老少從下, 干從上.

(좌측 상단) 十有二零成卦. 巽2庚--, 坎7辛一, 艮6壬一, 坤1癸×, 亡10己--. 老少從下, 干從上.

7) 우측의 『先天大衍百策數卦圖』는 구만옥의 위의 논문, 35면의 그림을 옮겨 놓은 것이다.

8) 김석문의 말은 卦數는 聖人 南面의 방위에서 北[下]-東[左]-南[上]-西[右] 시계방향운동 [↻] 즉 左旋한다는 것이다. 일반적인 좌선을 말한 것이다. 그러나 강절 선천도에서 말하는 左旋, 右旋은 이와 다르다. 강절에서 ‘좌선’이란 64괘도의 아래 북쪽 復卦에서 동쪽 離卦를 거쳐 남쪽 乾卦로 시계방향으로 이동함을 말하고, ‘右旋[우행]’도 남쪽 姤卦에서 서쪽 坎卦를 거쳐 북쪽 坤卦까지 순회하여 역시 시계방향[↻]이다. 8괘원도는 ‘震4-離3-兌3-乾1-巽5-坎6-艮7-坤8’의 순으로 시계방향이다. 이는 괘의 陰陽消長의 순서를 나타낸 運行方向이다. 일반적인 좌선우선은 교차하지만 강절 선천도에서 좌선우선은 교차하지 않고 같은 시계방향[↻]이니 이점을 유의해야 한다. 한편 괘의 生成順序[방향]는 ‘乾1-兌2-離3-震4-巽5-坎6-艮7-坤8’의 순이다. 강절역에서 괘의 운행방향과 생성방향을 구별해야 된다. 간혹 괘의 생성방향[건1~진4~곤8]을 운행방향[진4~건1~곤8]으로 착각하거나 좌우선을 혼동하는 글이 보인다. 괘의 운행순서는 『설괘전』 3장의 ‘已生, 未生之卦’와 ‘順數, 逆數’와 관련된 것이다. 조희영, 2015 『소강절 易數論은 어떻게 구성되었나?』 『철학논총』 81, 262-273면 참조.

위에서 제일 눈에 띄는 것이 “10으로 제해서 생긴 2개의 나머지로 효를 만들고, 12번의 나머지로 괘가 이루어진다(十除兩零生爻, 十有二零成卦)”라는 문구다. 현행 시초점은 시초 4개씩 제해서 3번으로 1효를 만들고, 18번해서 6효 1괘를 만드는데, 그는 시초 10개씩 제하고 2번으로 1효를 만들고, 12번하여 6효 1괘를 만든다고 말한다. 2번, 12번 문제는 ㉔에서 보기로 하고 먼저 시초수에 대해 보자. 시초 10개 씩 제한한다고 했다. 10개씩 제하면 총 시초는 몇 개인가? 황윤석의 『이재난고』에 김석문의 말이 다음과 같이 나타나 있다.

무릇 시초풀은 1년에 한 줄기가 생기니 100년에 100줄기가 생긴다. 한 묶음에 100 줄기가 생긴 것은 100년 된 물건이다. 그 수는 대연의 수와 서로 합치되니, 옛말에 ‘한 묶음에 100개 줄기’라는 것은 대연의 수가 100이라는 명백한 증거이다.<sup>9)</sup>

김석문이 말하는 대연도법은 시초수 100개를 사용한다. 그 근거로 시초풀의 줄기가 1년에 1개씩 생기고, 한 묶음 100개는 100년 만에 생긴다는 점에 착안하여 대연의 수는 100이라고 한다. 또 옛말에 ‘시초 한 묶음에 100개 줄기’라는 것은 대연수가 100이라는 명백한 증거라고 주장한다. 여기서 ‘옛말’은 朱子(1130-1200)의 말이다. 그러나 주자는 “대연의 수는 50이니, 시초 한 뿌리에서 생기는 100개 줄기는 대연의 수의 둘에 해당한다.”<sup>10)</sup>라 했다. 이처럼 주자는 ‘대연지수는 50’이라고 단정한다. 그러나 김석문은 자기에게 필요한 부분 즉 ‘시초줄기 100개’만을 취하여 자신의 ‘대연수 100’의 근거로 삼는다. 이처럼 그는 ‘대연지수’를 100으로 본다. 그는 小註에서 대연수 100이라는 또 다른 근거를 제시한다.

대연이란 낙서의 수를 늘린 것이다. 주자는 ‘낙서의 5는 또 스스로 지금 5를 얻어 10이 되어 대연의 수와 통하게 된다.’<sup>11)</sup>라 하였다. 낙서의 수 10을 크게 늘리면 그

9) 『이재난고』, 6冊 30권, 40면(면수는 국립중앙도서관 자료 기준) “凡蓍一年一莖, 百年百莖, 一叢生百莖者, 百年之物也. 其數自與大衍相合, 則古所謂一叢百莖者, 大衍數百之昭驗也.”

10) 『역학계몽』 明蓍策第三, 1103면 “大衍之數五十, 而蓍一根百莖可當大衍之數者二.”: 『주자어류』 77:3 “‘生蓍’, 便是‘大衍之數五十’, 如何恰限生出百莖物事, 教人做筮用?”

11) 『역학계몽』 本圖書第一, 1013-1014면 “洛書之五, 又自含五而得十, 而通爲大衍之數矣.”

수는 모두 100으로 이른바 全數이다. 옛날 하도와 낙서의 수도 모두 10에 그쳐서 그런 것이 아니겠는가.<sup>12)</sup>

그는 하도낙서의 수를 10으로 보고 늘리면 100이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여기서도 주자의 말을 근거로 삼지만, 주자는 하도낙서의 5를 늘리고 10을 곱하면 50이 되어 대연지수가 된다고 김석문과 역시 다르게 말한다.<sup>13)</sup> 앞에서 주자는 대연지수는 50이라고 명확히 말했다. 위 두 가지 예에 보듯 김석문이 주장하는 대연지수 100은 선유들이 말한 바가 없는 독자적인 주장이다. 역학사적으로 보더라도 대연지수에 대한 논란은 50이나 55이냐의 문제와 그 수의 유래가 무엇 이냐는 것이었지<sup>14)</sup> 100이라는 주장은 찾기 어렵다. 또 시초 10개를 제한하는 주장도 생소하다. 그는 10으로 제하는 이유에 대해 별다른 설명을 하고 있지 않다. 추측건대 하락의 전수가 10이니까 그런지 모르겠다. 아무튼 김석문은 시초 100개를 10개씩 제한다. 이런 주장은 경전의 근거가 부족하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다.

② 다음은 ‘2개의 나머지로 효를 만들고, 12번의 나머지로 한 괘가 이루어진다.’라는 부분이다. 여기에 대한 추가 설명이 『이재난고』에 나온다.

대연도법으로 매괘의 시책을 2번 나누어 왼손에 있는 시책을 10씩 除하여 12번 除하면 괘를 이루니, 또한 응하지 않는 바가 없다. 그 편리함은 18번보다 더 나으니 자잘한 일에는 대부분 대연도법으로 시초점을 친다.<sup>15)</sup>

12) 『이재난고』, 6冊 30권, 40면 “大衍者, 洛書之衍也. 朱子謂洛書之五, 又自今得五而得十, 而通爲大衍之數. 洛書之數十, 而大衍之, 則其數皆百, 所謂全數也. 無乃古之河洛數, 皆止十而然耶.”

13) 『역학계몽』 明著策第三, 1102면 “河圖洛書皆五居中, 而爲數宗祖. 大衍之數五十者, 卽此五數衍而乘之各極其十, 則合爲五十也.”

14) 대연지수에 대해 경방, 정현, 순상, 왕필, 한강백, 공영달 등은 50, 요신, 동우 김경방은 55라 한다. 황수기·장선문 찬, 2004 『十三經譯註 周易』, 上海古籍出版社, 513면; 정병석 역주, 2011 『주역』 하권, 을유문화사, 562-564면; 김상섭, 2011 『내 눈으로 읽는 주역』 역전편 하, 지호, 742-744면 참조.

15) 『이재난고』, 6冊 30권, 40면 “蓋以大衍圖法, 每爻再分著策, 左手所在十十除之, 十有二除而成卦, 亦無不應. 其便□過於十八變, 故小事則多用大衍筮之.”



위 인용문에서 결론은 대연도법은 현행 시초점보다 편리하고 占事에 잘 적중한다는 것이다. 즉 18변에서 12변으로 줄어들어서 편하고 그래서 小事(소소한 일)에는 이 법으로 점친다는 것이니 결국 占事를 大小로 나누어 이원화한다는 말이다. 그러나 여기서 핵심은 시초를 셀 때 왼손에 있는 시초를 10개씩 센다는 것이다. 현행 시초점이 양손의 시초를 각각 세는 것과 다르다. 왜 그럴까? 이 부분이 미심쩍었는데, 선행연구에서 실마리를 찾았다. <그림 2, 6>이 그것이다.<sup>16)</sup> <그림 2>의 「선천대연백책수패도」의 첫 줄 제목 밑 주석에 흐릿하지만 다음과 같은 말이 있다. 이 부분은 <그림 5-6>의 주석과 함께 봐야 이해가 빠르다.

하도낙서전수에서 취한 대연수 100개 시책을 (양손으로)공평하게 나누어 왼손에 든 시책을 10개씩 제하고 나머지를 얻는다. 나머지 시책을 다시 공평하게 나누어 왼손에 든 시책을 10개씩 제하고 나머지를 얻는다. 이 2개 나머지를 합하여 효가 생겨난다. 12개의 나머지로 폐가 완성된다. 각 효는 수를 기재하는데 위에서 아래로 적는다.<sup>17)</sup>

여기서 분명해진다. 즉 100개 시책을 양손으로 공평하게 나누어 세는 것은 '왼손에 든 시책[用左策]'이라는 점이다. 두 번째 설시도 마찬가지다. 첫 번째 설시 후 남은 시책을 다시 양손으로 평분하여 '왼손에 든 시책'을 센다.<sup>18)</sup> 이때 100개의 시책 중에서 태극을 의미하는 1개는 빼는가? 또 掛扐之數나 過揲之數는 발생하는가? 어디에도 그런 말이 없다. 따라서 대연도법에는 100개 시책을 전부 사용하여 왼손에 든 시책을 세어서 남은 수[零]를 단순 산출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 그 다음 중요한 것은 2변 즉 2개 나머지이다. 또 그것을 합하여 효를 만든다고 했다. 2변하여 나온 2개 나머지는 어떠한 과정을 거치고 어떻게 합할 것인가

16) 이 부분은 구만옥, 앞의 논문, 35면 그림에서 빌려왔다.

17) 『이재난고』, 6冊 30권, 부록 “取河洛全數, 大衍一百策平分, 用左策, 十除得零. 餘策又平分, 用左策, 十除得零, 合兩零生爻, 十二零成卦. 其每爻紀數, 自上而下.” 이 부분은 구만옥의 논문 35면의 그림 2에서 재인용한 것인데 글이 흐릿하나 다른 그림의 小註와 내용이 거의 같기 때문에 그 내용을 이해할 수 있다. 35면 「선천대연백책수패도」는 '十除', 「선천수패부도」에는 '八除'가 보인다.

18) 그럼 오른손에 든 시책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에 대한 말이 없다. 오른손 시책을 왼손으로 옮겨 세는 것도 생각할 수 있지만, '用左策'을 강조한 것으로 봐서 왼손의 시책만 세는 것으로 이해한다.

가? 현행 실시법<sup>19)</sup>과 달리 대연도법은 100개 시책을 양손으로 평분하여 왼손에 든 시책을 10으로 제하면 남은 수[零]는 1-10까지이다. 이게 1변[초설]이다. 그 다음 나머지 시책을 다시 평분하여 왼손에 든 시책을 10으로 제하고 남은 수[零] 역시 1-10이다. 이게 2변[재설]이다. 1변과 2변을 합하면 총수는 2-20이 된다. 10을 초과하면 10을 빼서 수를 구한다. 예컨대 1변의 나머지 1, 2변의 나머지 10이라면 합하여 11이 되어 10을 빼면 1이 된다. 1은 상단표를 보면 四象에서 노음(老陰:×)으로 動爻가 된다. 만약 1변이 3, 2변이 5이면 합이 8이 되어 소양(少陽:—)이 된다. 모든 수의 표시는 蓍策표시[•]로 하는데 이는 산가지[算木]의 대응이 되기도 한다. 이런 2변이 6회, 12변이 되면 6효가 된다. 위 인용문에서 ‘각 효는 수를 기재하는데 위에서 아래로 적는다.’라 했는데, 효가 아니라 小成卦의 의미로 봐야 한다. 예컨대 火風鼎卦(䷱)의 경우 상괘는 離로 3, 하괘는 巽으로 2이어서 수는 위에서 아래로 3-2의 시책표시[•]가 원도의 괘명-괘상 다음 난에 표시되어 있다. 여기서 궁금한 점이 있다. 김석문은 어디서 착안하여 2변의 합수로 효를 만들 생각을 했을까? 아마도 宋代 蔡沈(1167-1230)에게서 아이디어를 얻지 않았을까 한다. 채침은 낙서를 이용하여 새로운 점법을 만들었는데, 중심 수는 9이다. 2변의 실시로 한 數[효에 같음]를 구하고 두 수의 조합으로 占이 이루어지며, 占事를 대소로 구분하여 이원화했다. 채침의 이러한 점법을 김석문이 참고했으리라는 심증을 불러일으킨다.<sup>20)</sup>

19) 실시법 과정은 다음과 같다. ①49개 시책을 左右手 둘로 나누고[分而爲二以象兩] ②오른면에 둔 地策에서 하나를 취해 왼손 새끼손가락 사이에 掛1하고[掛一以象三], ③왼쪽에 둔 天策을 4씩 세고[揲之以四以象四時] ④남는 수를 왼손무명지 사이에 끼우고[歸奇於扚以象閏], ⑤오른쪽에 둔 地策을 4씩 세어 ④남는 수를 왼손 가운데 손가락 사이에 끼운다[五歲再開, 故再扚而後掛]. ①-④가 “四營而成易”이다. 1효 산출에 3변 실시하니 6효 1괘는 18번 실시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十有八變而成卦”라 했다. 시초를 손가락에 걸고[掛1] 끼운다[扚]는 뜻에서 掛扚之數라 하며 49에서 이 수를 뺀 수를 過揲之數라 한다. 과설지수를 4로 나누면 9,8,7,6 四象數라 하며 음양효가 부여된다. 뒤에 또 나온다.

20) 채침은 『홍범황극내편』을 지어 수가 만물의 근원임을 밝혔는데 여기에 독자적인 점법을 발명했다. 그의 점법은 낙서와 3의 배수 9, 9의 배수 81, 81의 배수 6561을 근간으로 한다. 현행 시초점과 다른 점을 보면, 제하는 것은 3개씩이며, 2변[剛,目]으로 하나의 수[효에 같음]를 산출하고, 8변으로 두 수의 조합 4개를 산출하여 81數의 占辭와 6561개의 길흉으로 판단한다. 자세한 내용은 『성리대전』 수록 『홍범황극내편』, 1597-1760면; 조희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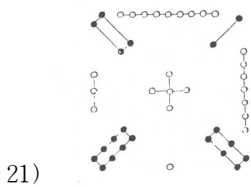
③ 소성괘 8괘에는 낙서수 1-9[중앙 5,10제외]가 부여된다. 10수를 맞추기 위해 空 5와 亡 10, 2수가 더해져 10수가 되었다. 10수 부여 내용은 그의 낙서 중시 역학관의 단면을 볼 수 있다. 강절역에서 8괘의 수는 괘생성 순서에 따라 '건 1 태 2 리 3 진 4 손 5 감 6 간 7 곤 8'인 데 비해 그는 낙서방위에 부여된 8괘에 낙서수를 부여한다. 이는 문왕후천8괘방위<sup>21)</sup>이기도 하다. 방위와 함께 보면, '北坤1-西南巽2-東離3-東南兌4-中空5-西北艮6-西坎7-東北震8-南乾9-中亡10'이다. 이 부분을 보면, 괘의 분포는 강절역을 따르고 8괘와 공망에 부여한 수는 낙서를 따른다는 점을 알 수 있다.

④ '老少從下, 干從上'에 대해서이다. '노소'는 노양, 노음소양, 소음의 四象을 말하고 이는 '하[下:아래]'를 따르니 박스 그림 속의 시책 표시의 아래 부분을 말한다. 이에 상응하는 음양호 표시도 이에 포함된다. '간[干:10 천간]'은 위를 따른다고 했으니 박스 그림 속 윗부분에 그려진 10천간과 시책표시가 그것이다.

⑤ 다음은 간지에 대한 부분이다. 김석문은 64괘 괘명과 괘상에다 낙서수에 따른 시책점 표시 및 간지를 배분하고 있다. 그 원리는 강절의 64괘 운행순서를 따라 분포한다. 64괘 운행의 첫 시작인 復卦에 甲子를, 그 다음 頤卦에는 乙丑를 분포시킨다. 단 子午卯酉에 속하는 乾坤同人師卦는 인접괘와 들쭉 동일 간지가 부여되었다. 그림 가운데에는 낙서수 5에 해당하는 시책 표시와 地支 10개가 표시되었으며, 그 밖으로 낙서수에 상응하는 시책과 간지가 분포되어 있다. 이것은 100개 시책에 10개씩 제한 시초점의 점사 판단에는 낙서의 원리도 엄두에 두어

2016 『數學的 人文學 觀點으로 본 蔡沈의 象數思想』 『대동문화연구』 96, 165-190면 참조.

圖 之 書 洛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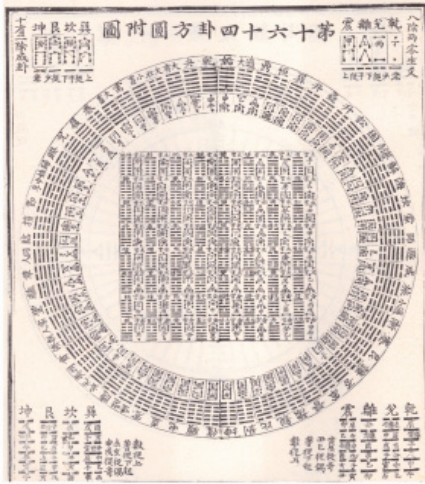


〈그림 3〉 낙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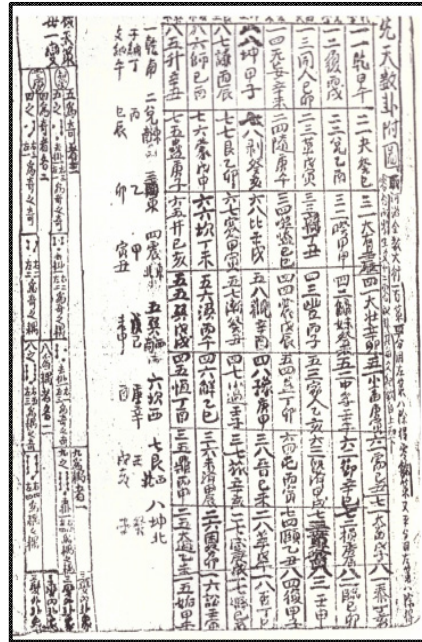
〈그림 4〉 문왕후천8괘방위도

야 한다는 의미이다. 허나 이것을 어떻게 감안하고 운용해야 할지 고민해야 할 부분이다.

(2) 시초 8개씩 제하는 방법[第十六十四卦方圓附圖:先天數卦附圖]



〈그림 5〉 第十六十四卦方圓附圖



〈그림 6〉 先天數卦附圖

김석문은 대연도법에 100개의 시초를 10개 제하는 방법 외에 8개씩 제하는 방법도 제시하고 있다. 8개씩 제하는 것을 나타낸 그림이 이 책의 『제십육육사과 방원부도(第十六十四卦方圓附圖)』(이하 ‘방원부도’라 함)이고 『이재난고』 부록에 나오는 『선천수배부도(先天數卦附圖)』가 그것이다. 방원부도의 구성은 강절의 『선천64괘방원도』를 그대로 따랐다. 따라서 8괘와 64괘의 배열순서도 강절역 그대로다. 이 책의 방원부도 상단에 아래와 같은 글이 있다.

(우측 상단) 八除兩零生爻. 乾1丁□, 兌2丙--, 離3乙--, 震4甲-. 老少從下, 干從上.  
 (좌측 상단) 十有二零成卦. 巽5庚--, 坎6辛-, 艮7壬-, 坤8癸x. 老少從下, 干從上.

위 인용문은 앞에서 본 「수괘대연도」와 비슷한 부분이 있지만 다른 부분이 더 많다. 앞에서는 시초수 10개로 제한하는데 여기서는 8개씩 제한한다고 한다. 수와 시초 표시도 1-8까지로 8괘만 있고 空은 없다. 1-8까지 수도 강절의 선천8괘 생성순서와 일치한다. 앞 그림에 나타난 낙서의 원리는 이 그림에는 없지만 납감법에 기반한 六爻占의 원리가 있다. ‘노소중하, 간중상’ 부분은 앞에서 본 것과 같다. 이런 상황에서 그의 대연도법은 두 가지로 10개씩 제한하는 방법과 8개씩로 제한하는 방법이 있고, 두 방법 모두 2개 나머지를 합하여 효가 생기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대해 선행연구는 10으로 제한하는 것이 아니고 8로 제한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sup>22)</sup> 필자는 이 의견에 동의하기 어렵다. 그 이유는 김석문의 두 그림에 뚜렷하게 두 방법이 제시되었다는 점이다. 선행연구가 제시하는 논거는 『이재난고』 부록에 나오는 「선천수괘부도」의 小註에 나오는 ‘八除’를 드는데, 「선천대연 백책수괘도」의 소주에는 ‘十除’로 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즉 10개와 8개씩 제한하는 두 방식이 김석문의 그림에도 있고 『이재난고』에도 각각 있다. 때문에 두 방법 모두 인정해야지 “인용문에 따르면 시초를 덜어내는 방식은 10개 아니라 8개”라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sup>23)</sup> 결국 두 방법 모두 김석문의 새로운 점법이다. 그럼 왜 8개씩 제한하는 방법이 별도로 필요한가? 또 왜 이 그림에는 납감법[육효점]이 표시되었는가? 그 이유를 한 번 추적해 보자. 그는 이 책 서문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나이 40에 처음 책을 저술했는데, 위로는 태극의 체단에서 아래로는 천지만물의 체용과 數卦 속을 확장하여 蓍草占, 易象, 納甲과 바다의 潮汐과 氣의 元會에 대해

22) 구만옥, 앞의 논문, 41-43면 참조.

23) 구만옥, 위의 논문, 41면. 구만옥은 「先天數卦附圖」의 小註에 나오는 “取河洛全數, 大衍一百策平分, 用左策, 八除得零. 餘策又平分, 用左策, 八除得零, 合兩零生爻, 十二零成卦. 其每爻紀數, 自上而下.”를 인용했다. 필자는 이 부분 뿐만 아니라 앞에서 「先天大衍百策數卦圖」의 小註인 “取河洛全數, 大衍一百策平分, 用左策, 十除得零. 餘策又平分, 用左策, 十除得零, 合兩零生爻, 十二零成卦. 其每爻紀數, 自上而下.”도 인용했다. 두 인용문은 10과 8로 제한하는 것을 각각 나타낸 것이다. 구만옥은 앞의 것[八除]만 인용하여 10제가 아닌 8제라 했고, 뒤의 것[十除]은 언급하지 않는데 이는 잘못된 것이다.

글을 짓고 천지가 태극으로 되돌아가는 것이 이르도록 했다... 책이름을 『역학이십사도해』라 했다.<sup>24)</sup>

위 말은 김석문이 책을 지을 때 담을 내용을 나열한 것인데 ‘태극에서 ... 數卦를 확장[부연]하여 시초점법, 역상, 납갑 등에 대해 저술하겠다’는 말이다. 시초점법과 납갑법이 그의 책에 주요 내용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납갑법이 김석문 점법에서 비중을 차지한다는 언급은 『이재난고』에도 아래와 같이 나온다.

- ① 대국 김석문 역학도해의 시초점법은 世應, 六神, 飛伏神의 효의 예가 鬼谷子, 京房, 郭璞의 옛 법을 모두 바꾸어 주류 변동하는 뜻을 얻은 것이 다음과 같다.
- ② 비신과 복신의 법은 바로 괘효사의 주석일 뿐이다. 괘효사는 비신, 복신법이 아니면 그 은미한 뜻을 천명할 길이 없고, 비신 복신법도 괘효사가 없으면 그 의심을 결단할 길이 없다.<sup>25)</sup>

위 ①에서 김석문은 납갑법에 근거한 육효점<sup>26)</sup>의 내용 즉 世應, 六神, 飛神伏神 등 옛 법[귀곡자, 경방, 괘박의 법]을 자신이 새롭게 정비하겠다고 말한다. ②에서는 비신 복신과 『주역』의 괘효사의 관계를 말하고 있다. 비신 복신은 육효점의 주요 내용인데, 여기서는 飛伏神八法을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sup>27)</sup> 이를 괘효사의 판단과 서로 보완관계임을 말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납갑법에 기초한 육효점은 간단한 방법으로 作卦하여 五行을 부여한 卦體를 정하는데 이때 필요한 것이 경방의 八宮卦次圖<sup>28)</sup>와 八卦納甲圖<sup>29)</sup>이다. 이 표를 기준으로 세응을 정하

24) 이 책 序目, “年四十始著書, 上自太極體段, 下至天地萬物體用, 數卦中行爲著象納甲, 海之潮汐, 氣之元會, 迄于天地返終于太極. … 命之曰, 易學二十四圖解.”

25) 『이재난고』, 6冊 30권, 39-40면 ①“本朝金大谷錫文, 易學圖解著草筮法, 其世應六神飛伏神爻之例, 竝改鬼谷京郭舊法, 得周流變動之義如左.” ②“飛伏之法, 直是爻象之註疏耳. 爻象非飛伏, 則無由闡其微, 而飛伏非爻象, 則亦無由決其疑.”

26) 오늘날 납갑에 기초한 육효점은 경방이 창안한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27) 六神은 用神, 原神, 仇神, 進神, 退神 이상 6이며, 비복신을 합해서 ‘飛伏神八法’이라 하여 육효점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 世應에서 世는 팔궁괘차도에 의거 초효-상효까지 주인이 되는 효를 말하고 應은 상대방이 되는 것이다.

28) <표 1> 八宮卦次圖, 乾=金, 坤=土, 坎=水, 離=火, 震=木, 巽=木, 艮=土, 兌=金.

고 각효에다 오행에 기초한 육친을 子父財官<sup>30)</sup>으로 부여하면서 거기다 인사와 사회적 상징을 덧붙인다. 또한 작괘시 산출된 動爻, 變爻를 기초로 비복신판법에 의거 用神과 忌神 및 비복신을 정한다. 육효점의 점사 판단은 일반적으로 용신인 자부재관의 五行生剋과 強弱을 위주로 길흉과 승패를 판단하지 괘효사를 그 준거로 삼지 않는다. 김석문은 이것이 잘못되었고 둘은 보완관계이지만 괘효사

구분	八宮卦							
上世	乾	坤	坎	離	震	巽	艮	兌
一世	姤	復	節	旅	豫	小畜	賁	困
二世	遯	臨	屯	鼎	解	家人	大畜	萃
三世	否	泰	既濟	未濟	恒	益	損	咸
四世	觀	大壯	革	蒙	升	无妄	睽	蹇
五世	剝	夬	豐	渙	井	噬嗑	履	謙
遊魂	晉	需	明夷	訟	大過	頤	中孚	小過
歸魂	大有	比	師	同人	隨	蠱	漸	歸妹

29)

〈표 2〉 八卦納甲圖

卦 爻/干支	乾 ☰	坤 ☷	震 ☳	巽 ☴	坎 ☵	離 ☲	艮 ☶	兌 ☱
上爻	壬戌	癸酉	庚戌	辛卯	戊子	己巳	丙寅	丁未
五爻	壬申	癸亥	庚申	辛巳	戊戌	己未	丙子	丁酉
四爻	壬午	癸丑	庚午	辛未	戊申	己酉	丙戌	丁亥
三爻	甲辰	乙卯	庚辰	辛酉	戊午	己亥	丙申	丁丑
二爻	甲寅	乙巳	庚寅	辛亥	戊辰	己丑	丙午	丁卯
初爻	甲子	乙未	庚子	辛丑	戊寅	己卯	丙辰	丁巳

30) 6효에 오행을 납입하여 이를 본체와 관계를 육친[父, 子, 兄, 財, 官]으로 표시함을 자부재관이라 한다.

위주여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비신복신은 괘효사의 주석일 뿐이라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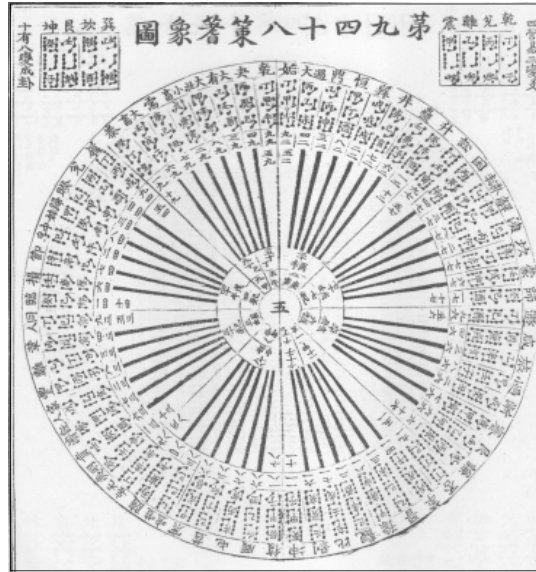
필자도 동감이다. 왜냐하면 육효점은 작괘에서 시작하는데 괘는 體로서 그냥 서 있고 작용은 납갑 오행으로 육친과 인사의 길흉만 따지기 때문이다. 근본은 『주역』이고 지엄은 납갑 오행인데, 괘효사는 보지도 않고 납갑 오행으로 길흉만 따지기 때문에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100개의 시초를 8개씩 제하는 대연도법은 괘효사 위주의 판단법에 8괘 납갑법의 오행생극을 보충하는 것이라고 봐야 한다. 10개씩 제하는 방법에는 납갑법이 없고 낙서의 원리만 있고, 8개씩 제하는 방법에는 납갑만 있고 낙서의 원리가 없다. 이런 이유로 8개씩 제하는 법이 별도로 필요한 것이다. 즉 10개씩 제하는 법에는 괘효사 외에 낙서의 전수 10이 역할을 하고, 8개씩 제하는 법에는 8괘 납갑의 8이 역할을 하기 때문에 8로 제하는 법을 별도로 만든 것이라고 추론한다. 이렇게 괘효사와 더불어 낙서와 납갑법을 중첩적으로 분포하여 점사를 정밀하게 판단하게 하는 것이 그가 말하는 옛 법의 정비로 보인다. 허나 김석문의 해설이 없는 지금으로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점사 판단에 적용할지 알 길이 없다. 향후 추가 자료가 발굴 되고 관련 연구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또 난해한 부분은 그림 하단에 나오는 작은 글씨의 설명문이다.<sup>31)</sup> 이것은 납갑과 8괘와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데 무엇을 말하는지 확실하게 와 닿지 않는다.

31) 우측: “寅辰從奇 丑巳從耦 蓍從下起 數從上起” 좌측: “數從上起 蓍從下起 未亥從耦 申戌從奇” 추측하건대 다음과 같이 풀이한다. 우측의 ‘寅辰從奇(인진은 홀수를 따라 일어난다)’에서 寅辰은 乾卦의 納支인 子寅辰午申戌 부분으로 이는 홀수를 따른다고 했다. 건괘는 상단에 시책 표시가 1로 홀수다. 그래서 인진은 홀수를 따라 일어난다고 했다. ‘丑巳從耦(축사는 짝수를 따라 일어난다)’에서 축사는 兌卦의 納지다. 태괘는 2로 짝수이다. 그래서 축사는 짝수를 따라 일어난다고 했다. ‘蓍從下起(시초는 아래를 따라 일어난다)’는 상단 좌우측 그림에서 시초점 표시와 四象 표시는 아래 있으므로 아래를 따라 일어난다고 했다. ‘數從上起(수는 위를 따라 일어난다)’는 네모난 박스 속 윗부분 수를 따름을 말한 것이다. 좌측의 글씨도 같은 원리로 보인다. 이 문구는 후천시초법 그림에도 나온다.



3) 先天蓍草法과 後天蓍草法

(1) 先天蓍草法(第九四十八策蓍象圖)



〈그림 7〉 第九四十八策蓍象圖

김석문의 또 하나의 새로운 점법은 그림 第九에 나오는 「四十八策蓍象圖」(이하 '48시상도'라 함)이다. 제목 그대로 시초 48개를 이용하여 시초점을 친다는 말이다. 48개를 이용하여 시초점을 친 사례는 조선역학에서 찾기 어렵다. 중국의 경우 宋代 蔡元定(1135-1198)이 말한 적이 있다. 이에 대해서는 뒤에 자세히 기술한다. 이 그림에 대한 김석문의 직접 언급은 보이지 않지만 일단 그림을 일별해 보자. 그림 상단 좌우에 선천8괘의 蓍策표시[●]가 乾卦(4,4,4), 兌卦(4,4,8), 離卦(4,8,4), 震卦(4,8,8), 巽卦(8,4,4), 坎卦(8,4,8), 艮卦(8,8,4), 坤卦(8,8,8)의 순으로 되어있다. 48개로 하는 실시에서 나오는 경우의 수는 모든 경우가 4 아니면 8이다. 또 실시하는 과정을 적은 우측에 “四營<sup>32)</sup>易三變爻”, 좌측에 “十有八變成

32) '四營'은 시초점을 치는 네 가지 절차를 말한다. 주자는 1. 시초를 둘로 나누는 것[分二], 2. 시초 하나를 거는 것[掛一], 3. 시초를 넷으로 세는 것[揲四], 4. 남은 것을 돌리는 것[歸奇] 것을 사영이라 했다. 後漢의 순상은 7,8,9,6을 사영이라 했다.

卦”라는 문구가 있다. 이는 『계사전』상 9장에 나오는 “四營而成易, 十有八變而成卦”과 같은 뜻으로 앞에서 봤다.

원도는 강절의 선천64괘도의 순서대로 배열되었다. 단, 수는 낙서 방위의 수가 배정되었고 간지가 함께했다. 곤괘에는 1 癸 子, 손괘에는 2 戊 己 未 申, 리괘에는 3 乙 卯, 태괘에는 4 丙 辰, 중앙은 5, 간괘에는 6 壬 戌 亥, 감괘에는 7 庚 辛 酉, 진괘에는 8 甲 辰, 건괘에는 9 丁 午 순이다. 이 수는 64괘 원도에서는 두 자리로 바뀐다. 원도에서 건괘는 9 9, 곤괘는 1 1 식이다. 5와 10도 8괘에 배분하였다. 그림 가운데도 낙서수와 천간을 배치했다. 일단 이 그림은 제목처럼 48 시책으로 산출되는 64괘에 나타나는 蒼草象과 낙서수와 간지가 배치되었다. 간지가 배치되는 순서 또한 강절의 64괘 운행순서를 따랐다. 시작점인 復卦에서 甲子가 시작한다. 어쨌든 이런 그림에서 김석문의 새로운 점법은 48개 시책이라는 것 외에는 선천시초법의 다른 단서를 파악하기가 용이하지 않다. 이처럼 1차 자료에서는 증거자료를 찾을 수 없으나 다행히 『이재난고』에 다음과 같은 말이 있다.

선천의 시초법은 시초 48개를 사용하는데, 초변 때 시초 하나 거는 것[掛一]을 겸하여 사용한다. 후천의 시초법은 시초 49개를 사용하고 초변 때 시초 하나 거는 것을 사용하지 않는다.<sup>33)</sup>

위 말은 선천의 시초점은 48책으로 실시하고, 후천의 시초점은 49책으로 실시한다는 것으로 김석문의 말이다. 이 글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문구가 있다. 바로 48개 선천시법인 경우 ‘초변의 掛一을 겸하여 사용한다(兼用初變之掛一)’와 49개 후천시법인 경우 ‘초변의 掛一을 사용하지 않는다(不用初變之掛一)’이다.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49개 시초를 사용하는 현행 시초법에서는 매번 마다 시초 1개를 손가락에 거는 ‘掛一’의 절차를 거친다. 이것을 김석문은 ‘초변의 掛一을 사용하지 않는다’라 했다. 즉 초변에도 1개 시초 걸고, 재변에도 1개 걸고, 삼변

33) 『이재난고』, 6冊 30권, 40면 “先天蓍法, 用四十八而兼用初變之掛一. 後天蓍法, 用四十九而不用初變之掛一.”

에도 1개를 각각 건다는 말이다. 이와 달리 48개 선천시법은 초변의 1개 거는 것을 재변, 삼변에도 '겸하여 쓴다[兼用]'고 한다. 이 뜻은 초변에는 1개를 걸지만 재변, 삼변에는 1개를 걸지 않고 초변에서 건 것으로 같음한다는 의미로 봐야 한다. 실제 48개로 실시 할 때 모든 변에 나오는 수는 4와 8뿐이다. 초변에 1개 걸고 재변, 삼변에 걸지 않고 실시해도 같은 결과가 나오고 1개를 계속 걸더라도 결과는 같다. 이에 대해 선행연구는 1변에 끝나고 난후 '1개를 들어내지 않고' 재변, 삼변에 포함시킨다고 한다. 그러나 이는 실시법의 실상과 다른 주장이다.<sup>34)</sup> '掛1'의 문제는 역학사적으로도 논란이 있었다. 그러나 그 논란은 모든 변에 '괘1'을 하느냐 마느냐의 문제였지 괘1한 것을 '들어내느냐 마느냐'의 논란이 아니었다. 즉 '괘1'한 것을 당연히 들어내어 掛扐之數<sup>35)</sup>에 포함시키는 것을 전제로 한 논란이었다. 49개 시책을 사용하는 현행 실시법을 정비한 주자 때에도 초변만 1개를 걸고 재변, 삼변에 걸지 않는다는 주장이 있었으나 주자는 이를 비판했다.<sup>36)</sup> 어쨌든 김석문은 선천시초법은 초변만 1개를 걸고 2,3변은 걸지 않고,

34) 구만옥, 앞의 논문, 40면. 구만옥의 말대로 48개 선천시법에서 초변에서 건 1개를 들어내지 않고 그대로 두면, 각변에서 나오는 경우의 수는 4나 8이 아니고 3, 7이 된다. 3, 7이 나오면 시초점이 성립되지 않는다. 따라서 초변에서 건 1개를 들어내어 掛扐之數에 포함시켜야 실시를 진행할 수 있다.

35) 앞에서 보았듯 '掛扐之數'의 뜻은 손가락에 걸고[掛] 끼운[扐] 시초수이다. 괘특지수는 49개로 실시 할 경우 13(5,4,4), 17(5,8,4), 17(5,4,8), 17(9,4,4), 21(5,8,8), 21(9,4,8), 21(9,8,4), 25(9,8,8)의 8가지 경우의 수가 나온다. 48개로 실시할 경우는 12(4,4,4), 16(4,8,4), 16(4,4,8), 16(8,4,4), 20(4,8,8), 20(8,8,4), 20(8,4,8), 24(8,8,8)로 8가지 경우의 수가 나온다. 이 수를 49혹은 48에서 빼면 過揲之數가 되고 다시 과설지수를 4로 나누면 사상수 9,8,7,6이 된다. 어느 경우든지 '掛1'을 들어내어 괘특지수에 포함시키지 않으면 '괘특지수'란 말이 성립되지 않는다.

36) 『역학계몽』 明蓍策第三, 1125면 “근세유자 곽옹(1091-1187)의 『시괘변의』의 경우, 곽옹은 오르지 앞 1변만 걸고, 뒤 두 변에는 걸지 않는다고 했다. 그는 횡거선생이 '다시 끼운 뒤에 건다는 것은 한 효가 매번 이론 뒤에 건다는 것'이라는 말을 (자신의 책에)실으면서, 이는 '2변 3변에는 걸지 않음'을 말한 것이라고 했다. 또, '횡거의 말은 註疏의 잘못을 밝힌 것'이라 했다. 주자가 이에 대해 변석하기를, '이 주장은 잘못되었다. 아마 횡거의 말이 아닐 것이다.'라 했다.(近世儒者, 若郭雍所著蓍卦辨疑, 專以前一變獨掛, 後一變不掛. 其載橫渠先生之言曰, '再扐而後掛者, 每成一爻而後掛也. 謂第二第三揲不掛也.' 且謂, '橫渠之言, 所以明註疏之失.' 朱子辨之曰, '此說大誤恐非橫渠之言也.'”) 이것을 정리하면, 곽옹

후천시초법은 1,2,3번 모두 1개를 건다. 49개 시책과 48개 시책에 대한 김석문의 말을 계속해서 살펴보자(중복 부분이 있다).

(중복부분:무릇 시초품은 1년에 한 줄기가 생기니 100년에 100줄기가 생긴다. 한 묶음에 100줄기가 생긴 것은 100년 된 물건이다. 그 수는 대연의 수와 서로 합치되니, 옛말에 ‘한 묶음에 100개 줄기’라는 것은 대연의 수가 100이라는 명백한 증거이다. 그러므로) 49책이란 문왕의 시초점법을 취한 것이다. 100개의 시초에서 99개를 취한 것은 極策의 근본을 남긴 것이다. [소주: 극책이란 시책의 근본 기둥을 말한 것이다.] 극책의 근본을 남긴다는 것은 시책 1개를 보존하여 신명에 접속하기 위함이다. 시초 50를 획득하여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은 무체의 수를 제거하는 것이다. 49개를 사용한다는 것은 乾策을 더하여 사용하는 것이다. 건책을 더하여 사용한다는 것은 1개 건 것을 보존하고 (2번, 3번)사용하는데 들이지 않는 것이다. 48책에서 1개 건 것을 겸용한다는 것은 100개 시책을 겸하여 취하는 것이다. 52개를 존중하여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은 유무체의 시작과 끝수를 함께 이끌어 가는 것이다. [小註:선천시초법은 48개를 사용하고 초변에서 건 1개를 겸용한다. 후천시초법은 49개를 사용하고 초변에서 건 1개를 사용하지 않는다.] 이것이 바로 시책으로 괘를 구하는 방법이다.<sup>37)</sup>

위의 글과 앞의 글에서 알 수 있는 것은 김석문의 점법에서 사용하는 시초수는 애초부터 100개이다. 100를 다 사용하는 것이 대연도법이고, 100개 중에서 1개를 極策으로 남기고 남은 99개에서 50개는 무체의 수로 사용하지 않고 49개를 사용하는 것이 문왕의 시초법 즉 후천시초법이다. 극책 1은 신명과 통하기 위한

---

이 장재가 ‘초변만 1개 걸고 2,3번에 걸지 않는다’고 말했다고 하면서, 이는 공영달이 註疏에서 범한 시초법의 오류를 일소한 것이라고 본다. 즉 괘용은 매번에 시초 1개를 거는 법이 잘못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주자는 괘용의 주장은 잘못된 것으로 장재의 말이 아닐 거라고 했다는 것이다.

37) 『이재난고』, 6册 30권, 40면 “(凡著一年一莖, 百年百莖, 一叢生百莖者, 百年之物也. 其數自與大衍相合. 古所謂一叢百莖者, 大衍數百之昭驗也. 故) 四十九策者, 文王取著之法也. 百取九十九策者, 極策之留本也. 極策, 謂著策元柱也. 極策之留本者, 存一而接續於其神也. 獲五十二不用者, 所去無體之數也. 其用四十九者, 加用其乾策也. 加用其乾策者, 存掛一而不入於用也. 四十八策之兼用掛一者, 兼取百策. 尊其五十有二策而不用者, 并與其有無體頭尻之數而導之也. … 此乃著策求卦之法也.” 괘호 부분은 앞에서 본 것이다. 따라서 괘호로 처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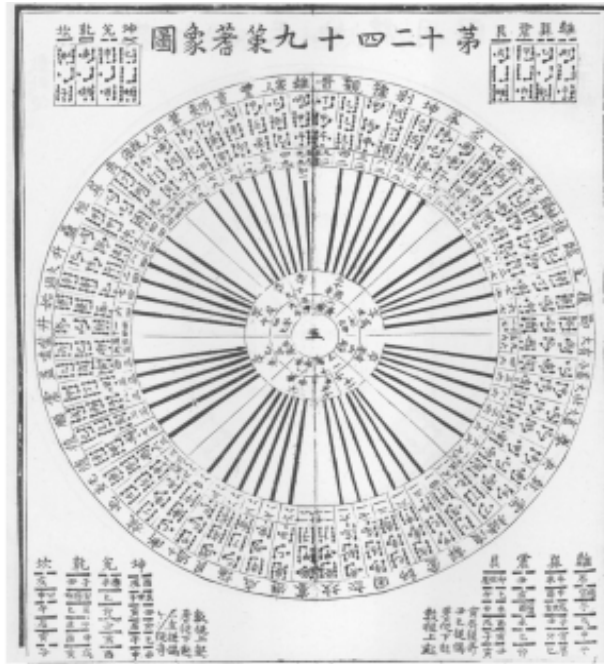
것으로 태극의 뜻이기도 하고 설시의 모든 과정을 장악하는 근본수 1이기도 하다.<sup>38)</sup> 이는 100개에서 1은 태극, 50개는 체로 불용, 나머지 49개를 쓴다는 뜻이다. 이 49개는 乾策을 더한 것인데 건책은 1번에서 1개를 건[掛1] 것을 보존한다는 뜻이고, 초변에서 건 1개는 2,3변에는 사용하지 않는다고 한다. 즉 2,3변에서도 1개를 건다는 뜻이다. 48개 시초를 사용하는 선천시초법은 100개 시초에서 52개를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이는 ‘유무체 始終의 수를 함께 이끌어 가는 것’이라 했다. 선뜻 이해되지 않지만, 이는 100개에서 1개는 태극이자 시작수로 불용, 50개는 체로 불용, 나머지 1개는 끝수로 불용하고 48개를 쓴다는 의미로 이해한다. 또 ‘48책에서 1개 건 것을 겸용한다는 것은 100개 시책을 겸하여 취하는 것이다.’라는 부분은 앞서서도 보았듯이, 1번에 건 시초1를 2,3변에도 계속 쓴다는 의미 즉, 2,3변에는 1개를 걸지 않고 1번에서 건 1개로 같음[兼과 동의어]한다는 뜻이다. 그래서 ‘겸하여 쓴다[兼用]’라고 했다. 위에서 논의 한 것을 쭉 보면, 선천시초법이라도 후천의 점치는 절차와 동일하고 점사의 판단도 현행 『주역』의 괘효사 그대로이다. 선천시초법도 점치는 과정이나 결과를 묻는 방법은 후천법과 동일하다는 것이다. 『이재난고』에서는 김석문이 『역학계몽』 고변점편<sup>39)</sup>의 핵심-효변시 점사 판단 방법-을 자신의 점치는 법[大谷所用筮法]으로 사용했음을 적고 있다.<sup>40)</sup> 즉 주자점법을 그대로 수용하고 있다는 의미이다. 다만 매 번마다 1개를 거는 문제와 시초수가 48이나 49나 차이뿐이다. 그런데 구태여 선천시초법을 발명한 이유가 있었을 것인가? 해답은 四象 발생 비율에 있다. 이에 대해 후술한다.

38) 조희영, 2015 『주역에 내재된 理數의 함의-송대 선천역학자의 관점에서-』 『한국사상과 문화』 77, 322면 참조.

39) 『역학계몽』 考變占第四, 1163-1241면(卦變圖 1177-1241면 포함); 주희(김진근 옮김), 2008 『완역 역학계몽』, 정계, 347-441면(괘변도 376-441면 포함) 참조.

40) 『이재난고』, 6冊 30권, 40-41면.

## (2) 後天蓍草法(第十二四十九策蓍象圖)



〈그림 8〉 第十二四十九策蓍象圖

현행 시초점법인 49책을 이용한 점법은 김석문의 말로 후천시초법이다. 후천시초법의 근거는 『繫辭上』 9장에 나오는 내용이 그것이다.<sup>41)</sup> 따라서 점법 자체로는 특별한 설명이 필요치 않다. 이 그림은 현행 주역점법인 49시책으로 왜가 생기는 것을 나타낸 것으로 제목도 ‘사십구시책상도(四十九策蓍象圖)’라 했다. 후천역이므로 문왕8괘 방위대로 원도에 8괘를 배치했다. 상단 좌우에 8괘가 설시에서 나오는 시책을 표시했다. 예건대, 손괘의 경우 삼변하면 책수가 (9,4,4)로

41) 『繫辭上』 9장 “天一地二天三地四天五地六天七地八天九地十，天數五，地數五，五位相得而各有合。天數二十有五，地數三十，凡天地之數五十有五。此所以成變化而行鬼神也。大衍之數五十，其用四十有九。分而爲二以象兩，掛一以象三，揲之以四以象四時，歸奇於扚以象閏，五歲再閏，故再扚而後掛。乾之策二百一十有六，坤之策百四十有四，凡三百有六十，當期之日。二篇之策，萬有一千五百二十，當萬物之數也。是故四營而成易，十有八變而成卦，八卦而小成。引而伸之，觸類而長之，天下之能事畢矣。顯道神德行，是故可與酬酢，可與祐神矣。子曰，“知變化之道者，其知神之所爲乎？”

음효(-- ) 표시하고, 감괘는 책수가 (9,4,8)로 양효(-), 건괘는 책수가 (5,4,4)로 동효이므로 동효 표시가 되어 있다. 8괘는 낙서수와 방위를 감안하여 ‘南離9-東南巽4-東震3-東北艮8-西南坤2-西兌7-西北乾6-北坎1’로 잡고 횡도와 원도에 배치했다. 그러나 나머지 56괘는 김석문이 임의로 그린 것이다. 64괘원도에 이렇게 64괘가 배치된 그림은 과거에 없었다. 8경괘의 위치는 후천도인 문왕8괘도와 동일하나, 나머지 56괘의 배열은 그의 독자적인 아이디어라는 것이다. 김석문의 독자성은 낙서의 원리와 5와 10의 활용으로 나타난다. 10에 대해서는 5는 10을 함유하고 있다는 주자의 주장을 채택했음은 앞에서 보았다. 지지 배정은 북쪽에子を 배정하여 나머지 지지는 좌선한다. 자오묘유는 한 괘를 추가하여 64괘와 60갑자의 불일치를 해소한다. 낙서수의 배정은 이와 다르다. 각괘의 하괘는 8괘의 수를 따르고 상괘 또한 마찬가지로 상괘에 1이 배정되면 10수를 추가하고, 9가 배정되면 5를 추가했다. 이렇게 추가한 것을 그림 중앙 상단 離卦 밑에 ‘加一’이라 했다. 천간배정은 두 번째 책수의 경우 坎에 갑을 배정하여 순서대로 좌선하는데 자오묘유 사정방은 두 괘에 걸침은 지지와 같다. 64괘에 표시된 시책점은 8경괘를 기본으로 하지만 정확하지 않다. 誤字의 의심도 든다. 그림의 가운데도 5를 중심에 두고 낙서수와 간지를 배분하고 있다. 아래에는 8괘의 납갑법이 있다. 후천시초법은 납갑법도 감안하여 종합적으로 점사를 판단하라는 것이다. 그림 하단 좌우측의 작은 글은 앞 대연도법 그림에서 본 것과 같다.<sup>42)</sup>

#### 4) 四象 발생 확률 등

##### (1) 四象 발생 확률

각종 시초점에서 四象[老陽-少陰-少陽-老陰]이 나올 확률에 대해 살펴보자.<sup>43)</sup>

##### ① 후천시초점[49책 사용] 설시에서 사상 생성 과정 및 그 발생 확률

42) 우측: “寅辰從奇 丑巳從耦 著從下起 數從上起.” 좌측: “數從上起 著從下起 未亥從耦 申戌從奇.” 이 문구는 앞의 대연도법에서 8개로 제하는 방원부도에도 나왔다. 의미도 그대로 원용한다.

43) 대연점법을 제외한 부분은 신명종의 논문을 참고했다. 신명종, 2017 『『周易』 占筮法과 現代의 含意에 관한 研究』, 성균관대 박사학위논문. 신명종은 주자점법 등에 대해 『周易折中』을 인용하는데 원래 내용은 『역학계몽』에 나오는 것이다. 『주역절중』은 그것을 인용한 것이다.

〈표 3〉 후천시초법 사상생성·발생 확률표

四象/數 <sup>44)</sup> 별칭. 발생확률	掛扐數(왼손에 걸고 끼운 수)	過揲數(49-괘특수)	경우의 수 <sup>45)</sup>	확률 산식(%)
老陽/9 重 18.75%	5,4,4(13) 3취	36(49-13)	$3/4 \times 2/4 \times 2/4$	$12/64 = 18.75$
少陰/8 柝 43.75%	5,4,8(17)2취1耦	32(49-17)	$3/4 \times 2/4 \times 2/4$	$12/64 = 18.75$
	5,8,4(17)2기1우	32(49-17)	$3/4 \times 2/4 \times 2/4$	$12/64 = 18.75$
	9,4,4(17)2기1우	32(49-17)	$1/4 \times 2/4 \times 2/4$	$4/64 = 6.25$
少陽/7 單 31.25%	5,8,8(21)1기2우	28(49-21)	$3/4 \times 2/4 \times 2/4$	$12/64 = 18.75$
	9,8,4(21)1기2우	28(49-21)	$1/4 \times 2/4 \times 2/4$	$4/64 = 6.25$
	9,4,8(21)1기2우	28(49-21)	$1/4 \times 2/4 \times 2/4$	$4/64 = 6.25$
老陰/6 交 6.25%	9,8,8(25)3우	24(49-25)	$1/4 \times 2/4 \times 2/4$	$4/64 = 6.25$

후천시초법은 주자의 의해 정비되고 현재 통용되는 점법이다. 위에서 보듯 소음이 발생할 확률이 가장 높고 그 다음 소양, 노양 순이고 가장 확률이 낮은 것은 노음이다. 사상의 발생 비율은 3:7:5:1이다. 확률이 들쭉날쭉한 것이 두드러져 보인다. 특히 노음의 확률이 노양에 비해 1/3 수준으로 현저히 낮다. 이런 현상에 대해 주자는 “자연스러운 法象”이라고<sup>46)</sup>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이런 불합

44) 四象數 산출은 2가지 방법이 있다. 하나는 괘특지수를 4로 나누어 1이면 취, 2이면 耦로 여기에 參天兩地이론을 적용하여 1은 3으로 2는 2로 환산한다. (5,4,4)인 경우 4로 나누면 1,1,1 3취로  $3 \times 3 = 9$  즉 노양 9가 되고, (9,8,8)인 경우 4로 나누면 2,2,2 3耦로  $2 \times 3 = 6$  즉 노음 6이 된다. 또 하나는 대연수에서 괘특지수를 뺀 과설지수로 계산하는 것으로 (5,4,8)의 경우 과설지수는 32(49-17)인데 이를 4로 나누면 소음 8이 되고, (5,8,8)인 경우 과설지수는 28(49-21)인데 4로 나누면 소양 7이 된다.

45) 1변에 나오는 괘특지수: 不五則九. 2,3변에 나오는 괘특지수: 不四則八이다. 1변에서 시초를 왼손가락에 걸고 끼우는 수[掛扐數] 5가 나오는 경우는 (1,1,3), (1,2,2), (1,3,1)로 셋이고, 9가 나오는 경우는 (1,4,4) 하나 뿐이다. 따라서 1변에서 5가 나올 확률은 3/4이고 9가 나올 확률은 1/4이다. 2,3변에서 4가 나오는 경우는 (1,1,2), (1,2,1) 두 가지이고, 8이 나오는 경우도 (1,3,4), (1,4,3) 두 가지 뿐이다. 따라서 2,3변에서 4나 8이 나올 확률은 공평하게 각각 2/4이다.

46) 『역학계몽』 明蓍策第三, 1127면 “且用舊法, 則三變之中, 又以前一變爲奇, 後二變爲偶. 奇, 故其餘五九, 偶, 故其餘四八. 餘五九者, 五三而九一, 亦圍三徑一之義也. … 亦皆有自然之法象焉.”



리한 점에 대해 抑陰扶陽의 논리가 주역에 내재되었다 하더라도 이치에 맞지 않는다면 주자의 점법만 고집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의견도 있다.<sup>47)</sup>

② 선천시초법[48개 시책] 사상 생성 과정 및 그 발생 확률

〈표 4〉 선천시초법 사상생성·발생 확률표

四象/數. 별칭. 발생확률	掛扐數(왼손에 걸고 끼운 수)	過揲數(48-괘륙수)	경우의 수 <sup>48)</sup>	확률 산식(%)
老陽/9 重 12.5%	4,4,4(12) 3취	36(48-12)	1/2×1/2×1/2	1/8=12.5
少陰/8 柝 37.5% 12.5%×3=37.5%	4,4,8(16)2취1耦	32(48-16)	상동	상동
	4,8,4(16)2기1우	32(48-16)	상동	상동
	8,4,4(16)2기1우	32(48-16)	상동	상동
少陽/7 單 37.5% 12.5%×3=37.5%	4,8,8(20)1기2우	28(48-20)	상동	상동
	8,8,4(20)1기2우	28(48-20)	상동	상동
	8,4,8(20)1기2우	28(48-20)	상동	상동
老陰/6 交 12.5%	8,8,8(24)3우	24(48-24)	상동	상동

선천시초법의 경우 사상의 발생 확률은 소음, 소양은 각각 37.5%이고 노양, 노음은 12.5%이다. 사상의 전체적인 비율은 노양:소음:소양:노음은 1:3:3:1로 균등한 비율을 가진다. 후천시초법의 발생 비율이 고르지 않음에 비해 선천시초법은 균등하여 占事 발생 확률의 균형성이 확보되었다. 게임률의 공평성 측면에서 후천시초법보다 선천시초법의 상대적 우월성을 지녔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성인이 선후천의 점서법을 만들 때 이렇게 고르지 않다는 것을 모르고 만들었을까? 그렇지 않았을 것이다. 이에 대해 채원정이 언급한 적이 있다. 앞에서 논의를 유보한 사상 발생 문제와 채원정이 언급한 48개 시초점에 대해 살펴보자.

47) 신명중, 앞의 논문, 64-65면.

48) 1,2,3번에서 4가 나오는 경우는 (1,1,2), (1,2,1) 두 가지이고, 8이 나오는 경우도 (1,3,4), (1,4,3) 두 가지 뿐이다. 이로 보면 선천시초법이 후천시초법보다 사상 발생 확률의 균등성을 확인 할 수 있다. 이는 점사의 객관성, 확률의 공평성을 비교할 수 하나의 잣대가 될 수 있다.

채원정 말하였다: 살피건대, ① 50개의 시초에서 1개를 비우고 2로 나누고 1개를 곱고, 4로 세어 홀수가 되는 것이 셋이고 짝수가 되는 것이 둘 인 것은 하늘은 3 땅은 2라는 자연의 수이다. … 대개 하나의 홀수와 하나의 짝수가 대대가 되는 것은 음양의 본체이다. 양은 3 음은 1로 하나는 넉넉하고 하나는 모자라는 것은 음양의 용이다. … ② 그렇지 않다면, 49개 시초에서 1개를 비우고 2로 나누고 1개를 곱고, 4로 세어 홀수가 되는 것이 둘이고 짝수가 되는 것이 둘이어서 노양이 8을 얻고 노음이 8을 얻고 소음이 24를 얻고 소양이 24를 (균등하게)얻으니 또한 좋은 것이 아니겠는가! 성인의 지혜가 어찌 이것에 미치지 못했겠는가. 성인이 이것을[49책] 취하고 저것을[48책] 취하지 않은 것은 진실로 음양의 체수는 항상 고르지만 용수는 양3 음1이기 때문이다.<sup>49)</sup>

위의 전체적인 맥락은 주자의 현행 49책 사용법을 옹호하는 글이다. ①에서 49책의 경우 사상의 발생확률의 불균형을 ‘參天兩地’라는 자연의 수에 기인한다는 점과 음양의 본체는 항상 기수 우수가 1:1로 대대하지만, 음양의 쓰임[작용:用]은 양3 음1로 음양의 넘침과 모자람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즉 채원정은 음양이 1:1로 대대하는 것은 음양의 본체이지만, 사상의 발생비율이 3:7:5:1이고 노양과 노음의 비율이 3:1인 것은 음양의 작용으로 파악한다. 이 3:1의 비율을 채원정은 강절의 ‘체4용3’의 원리를 들어 더욱 합리화한다.<sup>50)</sup> ②에서 채원정은 사상 발생 비율의 불균형이 없는 새로운 점법으로 48개 시초 사용법을 설명한다. 이 법의 장점을 왜 성인이 모를 수가 있겠는가라고 반문하면서, 그래도 49책을 택한 이유는 ‘진실로 음양의 체수는 항상 고르지만 음양의 용수는 양3 음1이기 때문(誠以陰陽之體數常均,用數則陽三而陰一也.)’이라 한다. 49책을 택한 이유는, 49책은 음양의 용수인 양3 음1을 시현하기 때문이다. 음양은 원래 본체로는 1:1이나 현실에서 작용하는 음양의 효과[힘]는 양3:음1이 정당하고 그것이 반영된

49) 『역학계몽』 明著策第三, 1127-1129면 “蔡元定曰, ‘①按五十之著, 虛一分二掛一揲四爲奇者三, 爲偶者二, 是天三地二, 自然之數. … 蓋一奇一偶對待者, 陰陽之體. 陽三陰一, 一饒一乏者, 陰陽之用. … ②不然則, 以四十九著, 虛一分二掛一揲四, 則爲奇者二, 爲偶者二, 而老陽得八, 老陰得八, 少陽得二十四, 少陰得二十四, 不亦善乎. 聖人之智, 豈不及此, 而其取此而不取彼者, 誠以陰陽之體數常均, 用數則陽三而陰一也.’”

50) 채원정은 인용문 ①의 이어지는 글에 “四時春夏秋冬生物, 而冬不生物. 天地東西南可見, 而北不可見 … ”이라하는데 이는 『황극경세서』에서 강절의 ‘體4 用3’을 설명하는 곳에 나오는 글이다. 體4는 用3不用1인데 그것을 양3 음1로 대체한 것이다.

것이 49책이라는 것이다. 여기서 생각할 것이 있다. 주자와 채원정의 이런 말들은 『성리대전』에 실린 『역학계몽』에 나오는 내용이다. 김석문은 일찍부터 北宋 五子の 역학서를 익혔고 그 통로는 『性理大全』임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성리대전』에 실린 역학서<sup>51)</sup> 가운데 채원정을 제외하고 48책 시초법을 언급한 책은 발견되지 않는다. 김석문의 48책 선천시초법은 채원정에게서 어떤 영감을 받았는지 모르겠다. 그리고 시대가 변했다. 채원정 때에는 주자학적 음양론과 우주관이 시대사상이기 때문에 ‘양3 음1’의 논리가 자연의 법상으로 수용되었지만, 500년이 지난 김석문 때에는 49책보다 48책이 지닌 사상 발생의 균등이란 합리성에 주목할 수 있었을 것이다. 이런 것은 선천시초법을 새로 개발할 충분한 이유가 되고, 더욱이 김석문처럼 균형감과 통찰력 및 학문적 용기를 가진 사람에게는 가능한 일이다. 김석문이 주자의 논리에 반하여 지전설과 우선설을 근간으로 하는 당시로서는 ‘파격적’이면서 새로운 우주론을 용감하게 주장했듯이 말이다.

③ 대연점법에서 사상 발생 확률

㉔ 10개씩 제한하는 경우: 김석문의 『수괘대연도』에 나오는 사상의 기초 수리는 10가지로 ‘공5-건9-태4-리3-진8-손2-감7-간6-곤1-망10’이다. 사상은 공5,진8,감7,간6은 소양, 태4,리3,손2,망10은 소음, 건9는 노양, 곤1은 노음이다. 소양과 소음이 각 넷이고 노양과 노음의 각 하나로 도합 10개의 경우의 수이다. 100개 시초를 양손으로 평분하고 왼손에 든 시책을 10개씩 제한 나머지[零] 둘을 합한 시초가 10개면 망10으로 소음, 시초 1개가 남으면 곤1로 노음으로 동효, 7개가 남으면 감7로 소양이 된다. 이 경우 시초를 걸고 끼우는 괘특지수나 대연수에서 괘특지수를 뺀 과설지수도 없이 100개에서 10씩 제한 순수한 나머지[零]로 계산하니 간단하다. 사상의 확률을 보면, 노양:소음:소양:노음은 1:4:4:1인 10%:40%:40%:10% 비율이다.

㉕ 8개씩 제한하는 경우: 『육십사괘방원부도』에 나오는 사상의 기초 수리는 8가지로 ‘건1-태2-리3-진4-손5-감6-간7-곤8’이다. 강절의 선천8괘 생성순서와도 같

51) 『성리대전』에 실린 역학서는 주렴계의 『태극도설』과 『통서』, 장재의 『서명』과 『정몽』, 소강절의 『황극경세서』, 주자의 『역학계몽』, 채원정의 『울려신서』, 채침의 『홍범황극내편』 이상 8책이다.

다. 사상은 건1은 노양으로 동효, 태2, 리3, 손5<sup>52)</sup>는 소음이며, 진4, 감6, 간7은 소양이고, 곤8은 노음으로 동효이다. 100개 시초를 양손으로 평분하여 왼손의 시책을 8개씩 제하고 나머지 둘을 합한 수로 8가지 수를 선택한다. 사상의 확률은 노양:소음:소양:노음은 1:3:3:1인 12.5%:37.5%:37.5%:12.5% 비율로 48개 시책으로 실시하는 선천시초법과 확률이 같다. 이 역시 괘특지수, 과설지수 없이 순수 나머지[零]로 사상을 판단하니 간편하다. 그래서 김석문은 작은 일에는 대연도법을 쓴다고 했을 것이다. 10개와 8개를 제하는 경우 사상 발생 확률을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표 5〉 대연점법 사상발생 확률표

구분	노양	소음	소양	노음
10개씩 제함	10%(1/10)	40%(4/10)	40%(4/10)	10%(1/10)
8개씩 제함	12.5%(1/8)	37.5%(3/8)	37.5%(3/8)	12.5%(1/8)

## (2) 점서법에 나타난 洛書와 納甲法

〈표 6〉 낙서와 납갑법 적용 내역표

구분	낙서	납갑법	그림	비고
대연도법1 (10개씩 제함)	○	×	第八數卦大衍圖	十除兩零生爻 十有二零成卦
대연도법2 (8개씩 제함)	×	○	第十六十四卦方圓附圖	八除兩零生爻 十有二零成卦
선천시초법 (48개 시초)	○	×	第九四十八策著象圖	四營易三變爻 十有八變成卦
후천시초법 (49개 시초)	○	○	第十二四十九策著象圖	현행 점법

김석문의 네 가지 점에 나타난 낙서와 납갑법 포함 여부를 나타낸 것이다. 위 표에서 현행 시초법인 후천시초법만 낙서와 납갑이 중복되어 있다. 이것의 의미

52) 그림에 巽이 소양(-)으로 표시되었으나, 이는 소음(-- )으로 표시되어야 한다. 巽卦≡는 陰卦(-- )이다.

는 낙서의 원리와 납갑법이 현행 시초법 점사 판단의 유력한 보조수단임을 보여 준다. 사상 발생 불균형으로 생길 수 있는 문제점이 있다면 낙서와 납갑으로 보충하라는 의미이다. 대연도법과 선천시초법에는 낙서와 납갑이 1개씩 분포된 것 역시 같은 취지일 것이다. 앞에서 말했듯 이런 요소를 어떻게 운용하여 개별 점사에 대입하고 판단해야 할지는 김석문의 직접 설명이 없는 한 정확히 알기 어렵다. 낙서에는 하도도 포함된다. 하락의 원리와 시초법과 관련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한편 김석문은 점치는 도구로 ‘용편초(龍鞭草)’ 혹은 ‘용편목(龍鞭木)’을 시초의 대용으로 삼았다는데, 그것이 영험했다는 말이 『이재난고』에 나온다.<sup>53)</sup>

### 3. 마치는 글

김석문의 『역학이십사도해』에 대해서는 많은 부분이 밝혀졌다. 그러나 아직 밝히지 못한 부분이 그림에 대한 상수학적 분석 및 새로운 점서법이다. 본 글은 그의 새로운 점서법을 분석한 글이다. 김석문의 점서법은 그의 그림과 황윤석의 『이재난고』를 통하여 그 실체에 다가갈 수 있었다. 무엇보다 『이재난고』에 대한 선행연구는 필자의 견해와 다른 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 글을 정초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김석문 점법은 복잡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간결한데 필자의 역량부족으로 중언부언한 것이 있었다. 이때까지 논한 것을 요약한다.

김석문의 점서법은 자신이 그린 네 가지 그림에 들어 있다. 그 그림은 강절의 선천도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그의 점서법은 현행 점서법과 다르고 종류도 다양하다. 크게 보면 3가지이고 다시 나누면 4가지이다. 큰 차이점은 대연지수를 50이 아닌 100으로 보면서 筮占에 사용하는 시초의 수도 50개가 아닌 100개라고 주장한다. 100개 시초에서 49개를 사용하는 후천시초법[현행 점법]과 48개를 사용하는 선천시초법이 있으며, 100개 전부를 사용하는 대연도법이 있다. 대연도법은 10개씩 시초를 제하는 법과 8개씩 제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대연도법은 설시과정도 다르다. 100개를 양손으로 평분하되 왼손에 든 시책을 10개 혹은 8

53) 구만옥, 앞의 논문, 44-46면 참조.

개씩 제한다. 이때 태극의 1이나 괘득지수, 과설지수는 발생하지 않는다. 8은 8괘의 8이고, 10은 8괘의 8에다 초과 艮의 2를 더해서 10으로 만들어 사상의 기초로 삼았다. 두 번의 설시 과정 즉 2번의 합으로 효를 산출하고, 12번으로 괘를 산출한다. 3번으로 효를 산출하고 18번으로 괘를 산출하는 현행법에 비해 절차가 간소하다. 그래서인지 소소한 작은 일에는 대연도법을 쓰고 그 점이 잘 적중한다고 했다. 선천시초법이나 후천시초법은 둘 다 현행 설시법의 절차와 같고, 점사 판단은 모두 주자점법이 준거가 된다. 선천시초법은 48개의 시초만 사용하므로 각변에서 발생하는 수는 4아니면 8로 균등하다. 후천시초점은 초변에 5 아니면 9, 재,삼변에 4 아니면 8이 나온다. 이들 점법은 사상의 발생 확률에서 차이가 난다. 후천시초법의 확률은 소음43.75%-소양31.25%-노양18.75%-노음6.25% 순으로 불균형적이며, 특히 노양과 노음의 비율은 3:1이다. 이에 비해 선천시초법은 1:3:3:1로 고르다. 대연도법은 10개씩 제한하는 경우는 1:4:4:1이고, 8개씩 제한하는 경우는 1:3:3:1로 고르다. 후천시초법의 불균형에 대해 주자는 '자연의 법상'이라 했고, 채원정은 '음양의 작용 효과'라고 적극 지지한다.

그러나 500년이 지난 조선의 김석문은 이런 불합리한 현상을 통찰하고는 새로운 점법을 개척한 것으로 보인다. 그의 새 점법에서 사상 발생 확률은 앞에서 보듯 균등하다. 게임룰을 정할 때 미래 발생 가능성에 균등성을 부여하여 객관성을 담보한 것이니 합리적이라 할 수 있다. 그는 기존의 납갑법 등을 일신하겠다는 다짐대로 새로운 점법에 다양한 내용을 담아서 점사 판단의 자료로 삼게 했다. 괘효사를 무시하고 오행의 생극만을 따지는 기존의 납갑법을 괘효 위주로 판단토록 하는 한편 낙서의 원리를 가미한 것이 그것이다. 확률이 가장 고르지 못한 후천시초점에는 낙서와 납갑의 원리 둘 다를 부과하고, 선천시초법과 대연도법[10개]에는 낙서의 원리를, 다른 대연도법[8개]에는 납갑의 원리 등을 중첩적으로 부과하여 점사 판단에 있어서 오류를 방지하도록 장치했다. 그러나 대연수가 100이며 시초 100개로 점을 친다는 주장 등은 경전의 근거가 부족한 한편 누가 봐도 '意外'이고 '破格'이었다. 이처럼 그의 점법은 전례를 찾기 어려운 것이지만, 자신의 학문에 대한 확신과 용기에서 비롯된 것일 것이다. 그런 정황은 대담하게 朱子에 반하는 천문이론을 주장하고 주자와 다른 새로운 점법을 발명

하는 것에서 알 수 있다. 아마 처음에는 기존 학자들의 반발과 환호가 공존했을 것이다.

그의 점법을 총체적으로 보면, 그가 지닌 학문적 ‘균형감각’과 시대를 뛰어 넘는 ‘창조적 과격성’이 더해진 조선의 새로운 점법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런 김석문의 점법에서 소강절과 주자의 자취 및 채원정-채침 부자의 흔적을 일부 발견할 수 있었다. 이런 분석에서도 미비한 것이 적지 않다. 특히 각종 점법에 나타난 납갑법과 낙서의 원리를 구체적인 상황에서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라는 문제와 그림에서 낙서의 수와 방위 및 간지 배분이 선천도와 불일치할 때 해결 방안 등은 향후 풀어야 할 숙제다.

주제어 : 김석문, 『역학이십사도해』, 새로운 점서법, 대연도법, 선천시초법, 후천시초법

투고일(2020. 7. 21), 심사시작일(2020. 8. 4), 심사완료일(2020. 8. 19)

## 〈Abstract〉

A Study on the Law of Divination(占筮法) in Kim  
Seok-moon(金錫文)'s 『Yeoghag-isibsadohae(易學二十四圖解)』

Cho, Hie-Young \*

Kim Seok-mun was a scholar who established a new theory of astronomy during the Joseon Dynasty through the creative fusion of traditional studies and the latest Western astronomy. Not only did he rewrite astronomy by writing this book, but he also pioneered I-ching-fortune-telling. This novelty about astronomy and I-ching-fortune-telling is the result of his 'academic boldness'. This article analyzes the new fortune-telling method invented by Kim Seok-moon. His fortune-telling method starts with his rather unconventional claim of "a number of Dae-yeon(大衍數) 100," denying the "a number of Dae-yeon 50," which has been a popular theory for thousands of years. It is said that the use of 49 sicho(著草) from 100 sicho(著草) is the law of hucheonsicho(後天著草法:current), and the use of 48 sicho(著草) is called the law of seoncheonsicho(先天著草法). The method of using all 100 sicho(著草) was called the law of Dae-yeon(大衍法). The process of divination of law of Dae-yeon(大衍法) is different from that of the predecessor. As for the current method, the three-sided(3變) 1-hyo(1爻) and 18-sided(18變) six-hyo(6爻) are performed, but the law of Dae-yeon(大衍法) goes through two-sided(2變) 1-hyo(爻) and 12-sided(12變) to make 6-hyo(6爻). It is said that the law of Dae-yeon(大衍法) is applied to small branches.

The probability of occurrence of the divination(占筮法) of Sasang(四象) is the most uneven, and the congenital and conjunctive methods are equal. The probability of each the divination(占筮法) of Sasang(四象)'s occurrence of thought is the most uneven in the law of hucheonsicho(後天著草法:current), and the law of seoncheonsicho(先天著草法) and the law of Dae-yeon(大衍法) are equal. This is a game rule issue. Reasonable and

\* A Full-time Researcher, Institute of Humanities, Korean Philosophy(I-Ching), Chosun University.



balanced, he needed a new law of divination(占筮法).

Overall, Kim Seok-moon's method of divination is a new method of divination that adds "objective rationality" made by his "balance sense" and "sharpness" beyond the times. Kim Seok-moon wanted to develop a fortune-telling method with a sense of mission and renew the Yook Hyo-jeom(六爻占) of Napgap(納甲), which was popular at the time. You can find traces of Song Dynasty's Xiàng shù yì xué(宋代 象數易) in the process of creating Kim Seok-mun's fortune-telling method.

**Key Words** : Kim Seok-moon(金錫文), 『Yeoghag-isibsadohae(易學二十四圖解)』, new divination(新占筮法), law of Dae-yeon(大衍法), the law of seoncheonsicho(先天蓍草法), the law of hucheonsicho(後天蓍草法:current)